

제주Utd, 올 시즌 홈 개막전 축포 불발

K리그1 2023 1라운드 수원FC와 0-0 무승부 유료화 이후 최다관중... 경기는 헛심 공방

올 시즌 야심차게 정상도전에 나선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수원FC와 홈 개막전에서 득점없이 비기며 승수를 챙기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개막전 '윤빛가람 더비'로 관심을 끌었지만 양 팀 모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1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특히 개막전부터 기대를 했던 브라질 출신 공격수 유리가 K리그1 데뷔골을 노렸지만 페널티킥 찬스에서 실축하며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전면 유료화 정책을 시행한 2017시즌 이후 최다 관중인 8362명이 경기장을 찾아 관심을 끌었다. 홈팀 제주가 시작과 함께 주도권을 잡았다. 구자철이 전반 7분 감각적인 오른발 터닝슛으로 상대 골문을 노크했다. 수원FC는 전반 16분 U-22 출전 카드인 장재웅과 이대광을 빼고 라스와 이광혁을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를 반전에 나섰다. 제주는 이에 개의치 않고 안현범의 오른쪽 측면 돌파에 크로스 전

개가 주효하면서 수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제주는 후반 8분 유리가 페널티킥 찬스를 가져오며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키커로 나선 유리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무위로 끝났다. 경기 막판 서진수, 김승섭, 지상욱을 동시에 투입하며 화력의 세기를 더했지만 끝내 수원FC의 골문을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제주의 홈개막전은 헛심공방끝에 막이 내렸다.



2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수원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1라운드는 2017년 전면유료화 이후 최다 관중인 8362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이상국 기자

제주Utd, 문체부장관배 고교축구 우승 대구 대륙고 2-0 완파... 5년 만에 정상 탈환

제주유나이티드 U18이 5년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정상을 탈환했다. 제주유나이티드 U18(이하 제주)은 26일 경남 진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에 결승전에서 대구 대륙고를 2-0으로 격파하면서 정상에 올랐다. 이상호 감독이 이끄는 제주는 전반 10분 최병욱의 골과 38분 전민규의 골을 묶어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 제주는 뒷문을 단단히 걸어잠그면서 무실점 승리를 이끌어냈다. 제주는 서진수(제주Utd)와 이동률(서울이랜드FC)이 활약하던 2018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뒤 5년

만에 정상탈환에 성공했다. 제주는 앞서 예선 J조에서 충주 상고를 3-0으로, 평택FC를 8-0으로 완파했다. 3차전은 부천FC1995와 1-1로 비기며 조 1위로 16강전에 나섰다. 16강전에서 마산공고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신승하며 8강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는 서울이랜드FC에 2-1 역전승을 거두며 고지 정복을 눈앞에 뒀다. 제주는 이번 대회에서 골케터 최병욱 4골을 비롯 김준하와 김진호(3골), 전민규(2골) 등의 활약으로 정상권의 실력을 과시했다. 캡틴 박민재 등의 수비진도 4실점의 철벽 방어진을 구축하며 공수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제주서초 올 시즌도 최강의 실력으로 2023 칠십리 춘계유소년축구페스티벌 '전승' 기록

제주서초등학교의 기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축구명가'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한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제주서초는 올 시즌 개막전으로 펼쳐진 2023 서귀포 칠십리 춘계 유소년축구 페스티벌에서 1, 2차 리그 함께 전승을 거두며 탄탄한 전력을 과시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차 리그에서 4조에 편성된 제주서초는 울산 학성초와 중문초, 서귀포리더스 FC 등을 잇따라 제압하며 3전 전승을 기록했다. 24일 공천포구장에서 치러진 리그 3차전에서 울산 학성초를 5-2로, 앞서 23일 같은 곳에서 열린 중문초와의 경기에선 3-

1로 승리했다. 또 지난 22일 1차 리그 조1위를 차지했던 서귀포리더스 FC와의 경기에서도 6-2 완승을 거두며 이번 대회를 마쳤다. 제주서초는 2차 리그에서도 14골을 터트리고 실점은 5골 기록하며 공수조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제주서초는 앞서 1차 리그에서도 16조에서 조 1위에 올랐다. 제주서초를 이끌고 있는 김승제 감독은 올 시즌도 선수들과 신뢰를 통해 승수를 쌓는다는 전략이다. 우선 백호기 3연패의 두 번째 도전을 비롯 12년 연속 주말리그 무패와 함께 전국소년체제대회 출전권 및 성초를 5-2로, 앞서 23일 같은 곳에서 열린 중문초와의 경기에선 3-

간판타자 이정후 공격 침범 맡을 듯

WBC 대표팀 '톱타자' 예상 연습 4경기 내내 1번 출격 좌·우 투수 상대 타율차 미미

다음달 9일 정도 일본 도쿄돔에서 막을 올리는 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B조 1라운드 첫 경기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은 반드시 꺾어야 할 호주를 상대로 어떤 타순을 들고나올까. 이강철 대표팀 감독은 25일(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슨의 키노 베데라스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kt wiz를 상대로 한 네 번째 연습 경기를 마친 뒤 "상대 선발 투수의 유형(왼손 또는 오른손)에 따라 다른 타순을 쓰겠다"고 공언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합류해야 타선이 완성된다며 타순 언급을 피했던 이 감독이 연습 경기 네 번을 치르고 나서 한 발짝 나아간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오른손 투수라면 나성범(KIA 타이거즈)과 강백호(KT) 두 좌타 슬러거와 교타자 김현수(LG 트윈스)가 중심에 증용될 확률이 높다. 주목할 선수는 KBO리그 간판타자인 이정후(키움 히어로즈)다. 대표팀 소집 후 네 번의 연습 경기에서 타순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이정후는 줄곧 1번을 쳤다. 이 감독은 올 시즌 후 MLB 진출을 염두에 두고 빠른 볼에 대처하고자 스윙을 간결하게 바꾼 이정후가 좀 더 많은 타석에서 적응을 마치도록 1번 타자로 기회를 줬다. 아울러 이정후의 '공격 침범' 가능성도 시험했다.

이정후는 2017년 프로에 데뷔해 지난해까지 통산 타율 0.342에 출루율 0.407, 장타율 0.495라는 뛰어난 성적을 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즌 최다인 홈런 23개를 날려 장타율도 0.575로 끌어올렸다. 키움에서 3번 타순에 가장 많이 섰고, 그다음으로 1번을 자주 맡았다. 통산 우투수 상대 타율(0.346)과 좌투수 상대 타율(0.331)의 차이가 크지 않다. 현수 에드먼이 스위치 히터이지만, 한국 대표팀에는 처음 발탁된 만큼 타선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이정후가 '플레툰 타선'의 톱타자 완장을 차 수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한국오픈 디오픈 출전권 2장

아시아투어에 총 6장 주어져 올해도 코오롱 한국오픈 골프 선수권대회에 디오픈 출전권 2장이 주어진다. 디오픈을 주관하는 R&A는 이런 방침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아시아한 골프협회에 주회하는 한국오픈은 아시아프로골프투어와 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아투어 공동 공인 대회이다. R&A는 2017년부터 한국오픈을 디오픈 웰리파인 대회로 지정해 상위 2명에게 디오픈 출전권을 배정해왔다.

작년에는 연장전을 치러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진 김민규(22)와 조민규(35)가 디오픈에 출전했다. 올해 한국오픈은 6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아시아투어는 또 다음 달 23일부터 26일까지 홍콩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아시아투어 월드시티 챔피언십 상위 4명도 디오픈에 출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시아투어에는 모두 6장의 디오픈 출전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디오픈은 오는 7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로열 리버풀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20,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대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어재활사

제주시청 광양사거리